

여름철 해상국립공원 관리방향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정장훈(鄭張勳) |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사무소 소장

1. 들어가며

우리 나라 국립공원은 산악형국립공원 15곳, 사적국립공원 1곳, 해상-해안국립공원 4곳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중 해상국립공원은 우리나라 남해 도서를 포함하고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다.

해상국립공원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나라 해양생태계의 핵심지역이며 다양한 해양 동식물과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고 연안 및 도서지역의 습지 사구 조간대 조하대는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해양 생물과 독특한 생태계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과 해중경관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국립공원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상국립공원은 육상국립공원 보다 더 광활한 관리 면적에 비해 적은 공원관리 인력과 소규모 예산으로 합리적인 방향에서의 국립공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매년



1. 백도 (명승 제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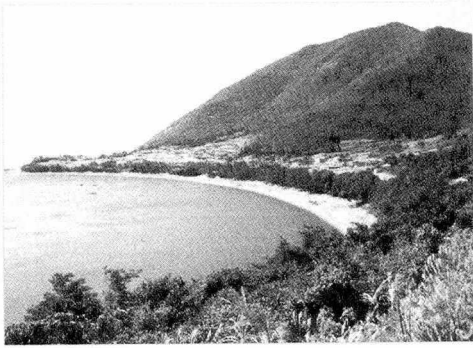
여름성수기(7~8월)에는 해수욕장과 일부 해안을 중심으로 탐방객이 일시에 집중함으로써 공원관리를 위한 수용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다해해상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여름철 해상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현황과 애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관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리현황 및 애로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우리 나라 총 국립공원 면적의 35%(2,321km²)를 차지하고 있는 방대한 국립공원이며 5개 시·군 18개 읍면에 걸쳐 섬 지역은 물론 해안과 바다를 포함하여 광활하게 분포되어 있고, 연간 탐방객이 1,300만명, 공원 내 유무인도서가 400여개, 거주인구가 총 27,000여명(약 11,300가구)에 달하는 곳이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에는 수많은 도서가 산재되어 있고 무인도서의 경우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악형 국립공원과 달리 명확한 공원구획이 드러나지 않아 현장관리에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여름 성수기철에는 탐방객이 일시적으로 밀집하여 도서내 해수욕장 등의 자원 및 탐방객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공원 내 다수의 마을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주민과의 마찰 또한 빈번하다.



2. 보길도 예송리 상록수림



3. 청산도 지리해수욕장

또한 난(蘭), 분재용 수목 등의 식물 채취와 갯돌 반출과 같은 불법행위가 거문도, 소안도 등 원거리 도서지역에서 비밀리에 선박(사선) 및 차량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여름성수기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생계를 위한 잡상행위 및 무질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사무소에는 서부지역과 남해지역에 20톤급 선박 2대(다도해 서부사무소 선박 1대 포함)를 보유하여 순찰을 하고 있지만 연중 순찰 및 단속에 한계가 있다. 사실상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직원들의 수시 순찰 활동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탐방객 및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계속되는 등 공원관리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주요 거점지역인 보길도와 청산도등 6개 섬에 추가로 분소를 개소·운영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도서에 나가 있는 분소를 중심으로 현장 접점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협력 강화 및 탐방객 서비스 제공 등 관리 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3. 관리 방향

가. 현장 접점 도서 지역에서의 관리 강화

우리 나라 최대의 국립공원임을 자랑하고, 푸른 바다와 섬이 그려내는 절경이 빼어난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에서 탐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근 신설된 분소가 위치한 도서 현장 접점에서부터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4.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김 만들기)

여름 성수기철에 집중적으로 현장 접점에서 탐방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탐방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탐방안내소 운영과 지역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동 민원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처리하여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 대책으로는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전개, 클린업 타임제(Clean up time) 실시, 불

법투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국립공원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찾는 모든 탐방객이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5. 선박을 이용한 순찰 활동

국립 자연자원 보호 대책으로써 국립공원은 우리 나라 자연 및 문화 자원이 뛰어난 지역으로서 생태적으로나 문화적 가치로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도 탐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국립공원의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 자연자원, 문화자원을 보전하고 보호하는데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름 피서철 무분별한 탐방객들의 훼손행위로부터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보호단 운영, 위법행위가 빈



6. 장보고 축제기간 국립공원 홍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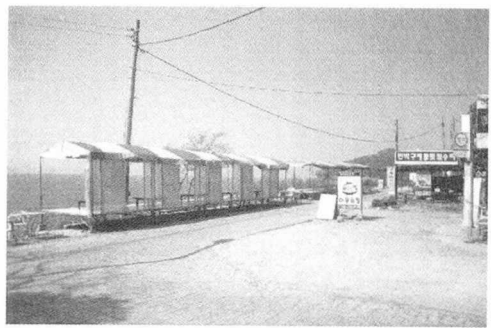
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해안가 갯돌이나 희귀 난 등의 밀반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국립공원의 자원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중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자생하는 39개 종에 대한 점진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완도군 소안도 지역에 널리 자생하던 '황근' 복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7 참조)



7. 장보고 축제기간 국립공원 홍보활동

또한 그동안 공원내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던 공원환경 저해 시설물(폐 축양장, 철조망, 각종 콘크리트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고 주민을 설득하여 조속히 정비하는 등 자연 그대로 원형을 유지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사진8,9 참조)



8. 정도리 환경 저해시설 정비 (전)



9. 정도리 환경 저해시설 정비 (후)

나.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활성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공원 특성상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여름 피서철 지역 사회와의 적극적인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립공원에서는 2006년 5월부터 공원 내 주요 도서지역의 자연자원 훼손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이장, 어촌계장 및 청년회장 등 지역 대표자를 주축으로 한 「자원보호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원보호단」 제도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은 도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훼손 행위를 단속·계도하기 위해 도입된 최초의 지역 주민 참여형 공원관리 제도이다. 이는 해상국립공원이 과거부터 안고 왔던 인력 및 예산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과 탐방객이 참여하는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외국의 해양국립공원 관리사례를 볼 때 호주의 경우 1970년대부터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1975년 대보초해양공원법(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ct 1975)을 지정해 340,000km²의 해양지역을 대보초해양공원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해양 보호지역의 주요 관리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지역 사회의 국원 관리 참여이며, 해양공원관리청에서는 장기적 공원관리 계획에 지역 사회와에 협력분야를 포함시켜 참여형 공원관리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다양한 지역 사회 협력 활동이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질 때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은 해소되고, 자발적인 공원관리 참여, 자연자원 보존에 대한 중요성의 재인식 및 성숙된 국립공원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어 지역 사회와 국립공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상공원 관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다. 자연친화적 탐방 유도 및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 운영

여름 피서철은 가족, 연인 등 다양한 계층들이 한여름 더위를 피하고, 삶의 여유를 찾는 그런 계절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단순히 국립공원을 방문해서 먹고 마시고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는 기존의 탐방문화를 개선하고, 자연과 탐방객이 하나 되는 국립공원으로서 다양한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탐방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도해 해상사무소에 서도 공원의 특성을 살려 향일암 지역에서는 문화역사해설을, 갯돌소리 들리는 정도리 자연해설, 쪽빛 바다와 함께하는 거문도 자연해설, 해양생태계의 중요성과 어부들의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기획프로그램인 '정도리 테마이야기', 어린이를 위한 주니어 레인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탐방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4 참조)

또한 예전의 노후 건물을 탐방지원센터로 정비하여 탐방객들에게 해수욕장 및 공원관련 정보 등 탐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편안한 탐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 약력

- 전남 완도에서 남(1959년)
-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내장산남부 과장 역임
- 국립공원관리공단 총무과장, 비서실장 역임
- 내장산 백암사무소장 역임, 다도해 해상사무소장(현)